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쌍하
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계 2:1
0)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 충현군의 날에 8,0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은혜중 「15일간의 시온성대행진」막내려 새벽기도회 참석 연인원51,924명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 주제로 개최된 시온성대행진은 지난 20일 새벽기도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5일간 계속된 동 행진은 연인원 5만 1천 9백 24명이 참석했으며 매일 평균 새벽기도회 출석이 3,460명으로 집계되었다.

16일 금식일의 금식헌금은 1천6백87만3천1백60원이며, 금식미는 20말(2가마분)이 나왔다.

이 헌금은 충현교회 북한 지교회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마지막날 새벽기도회는 3천5백여명이 참석하여 찬송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흥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의 합창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것을 다시한번 다짐했다.

시온성대행진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임태주 전도사는 본당 2층 오른쪽 코너에서 에바다부 학생들에게 수화로 봉사했으며, 매일 아침 찬양대는 180여명 이상의 연합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비디오 촬영반은 구석구석 다니며 시온성대행진의 진행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새벽기도회 마친 이후 대학부, 청년부, 직전부, 장년1부, 새가정부, 찬양대에서 나와 은혜로운 찬송으로 귀가길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6월 18일 충현군의 날에는 「민음의 떡」 1만포를 나누어 주었으며, 각 교구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들이 새벽기도회 동원참석에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사랑의 차」 태워주기 운동을 펴, 같은 방향의 성도들의 차량편의를 도모했으며, 각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주므로 새벽단잠을 깨워주는 자명종역할도 기쁘게 봉사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온성대행진 마지막날(20일) 새벽5시부터 15분간 동쪽 하늘에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므로써 우리가 기도해 왔던 7가지 기도 제목들과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모든 울부짖

음에 응답의 표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승전감사예배 오늘 오후7시 본당서

시온성 대행진 승전 감사예배가 오늘(25일) 오후7시 본당에서 갖는다.

38명 참모, 14행진대의 감독(교구교역자), 행진대장(교구장, 지역장 장로), 행진부대장(부지역장 권사, 협력구역장 집사), 행진전령(교구간사), 행진반장(구역장, 집사, 권찰), 행진대원(전교인)이 참석한 승전감사예배에서는 각 참모들의 승전보고와 또 은혜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을 예정이다.

시온성대행진 견학 부산 은성교회 교우들

부산시 서구 남부민 2동 440-3에 위치한 은성교회(담임: 최상식목사)는 지난 17일 본교회 시온성대행진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경남식 전도사 인솔로 강두만, 김명철, 정종식, 이상목, 박대원, 이명선, 문선희, 윤미경, 정영자 등 10명이 참관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시온성대행진이 개교회 영적 각성운동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갱신운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담성경반 성경연구원 휴강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주간성경공부가 6월 말로 종강하고 휴강에 들어간다. 또 매주 금요일 새벽에 있는 아담 성경반도 휴강한다.

7·8월은 휴강하고 9월 초에 모두 개강한다.

한국·국제 기드온협회에 본교회서 성경반포 헌금

본교회는 지난 주간 한국·국제기드온협회에 성경반포 헌금으로 오백만원에 보냈다.

동 헌금은 군인용 성경 1만권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보내겠다고 동 협회에서 답신

시온성대행진 새벽기도회설교요약

강사/ 이종운 위임목사

제9일 6월 14일

아브람의 계약

본문: 창 15:7-21

하나님은 계약을 주시면서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사변적 또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자 아브람은 확신을 갖기 위하여 증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불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확신을 달라고 간구했으며, 죽게된 히스기야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겠노라는 약속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시겠노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고 귀하고 확실한 증거는 신구약 성경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상의 증거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도 큰 증거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약 중에서 무지개 언약은 인류 전체에 걸친 약속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약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18절에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쌍방의 계약자가 조겐 짐승의 사이로 지나감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피흘림을 당했으므로 신성한 계약이며, 하나님께서 조겐 짐승 사이를 혼자서 지나가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둘째, 이 계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쉽게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브람에게 주셨던 약속인 것처럼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 계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람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줄어 들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주셨던 일방적이고 영원하며 은혜스런 이 언약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기도로 인하여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북한에 까지도 성취되리라 믿어집니다.

제11일 6월 16일

불가능한 하나님

본문: 창 17:1-14

설교 제목이 비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하실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서서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까.

본문 1절에 아브람의 나이가 99세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후손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는-을 다시 하셨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 6절에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하여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씨,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심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로, 주어진 언약을 몇가지로 확인시키

셨습니다.

1) 판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30, 40대에 후손을 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두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 무지성을 깨달았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2) 언약하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불러 봅시다.

3) 언약의 증거-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의식의 의미는 성결,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조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할례받은 자란 옛 사람을 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합시다. 본문 1절에선 "완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므로 우리도 구별된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제10일 6월 15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본문: 창 16:1-16

성경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거나 위대한 인물 정도는 되어야 인도하시고, 반면에 보잘 것 없는 인생에 대하여는 외면하시거나 눈을 감고 계십니까?

비록 보잘 것이 없었으나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하갈)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갈은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이라고 자학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 를 받고서 순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선 하갈을 주지하시고 감찰하셨는데

첫째, 하갈이 울부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브람과 사래에게 약속의 자녀가 아직 잉태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지도 않고 믿었던 아브람이 이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은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갈 4:22 이하에 보면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란 약속이 아닌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써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생각은 바로 아브람이 하갈에게서 약속의 후손을 얻으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의 결과이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죄가 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요?

둘째로, 하갈은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 34:10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찾으십니다. 나는 세상 사람에게서 배려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갈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축복이 왔습니다.

하갈이 10절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전제조건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워진 권위에 대하여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감찰하시되 우리가 어디로 다니며,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믿고, 하나님께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역사적인 전례를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제12일 6월 17일

언약의 자손

본문: 창 17:15-27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행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복받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경위를 간파합니다. 구약에서 요셉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나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모든 생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이방인까지도 복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충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 사래의 이름이 '사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신분이 배편다고 했습니다. '사래'로 바뀐 것은 그 이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래가 거둔 사람,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므로 그 집의 종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몸뚱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지칭합니다.

영적이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롬 2:28 이하엔 마음의 할례를 믿음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자손의 마음에 할례받게 하는 이유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 2:38-39에 회개와 세례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으며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마땅히 언약의 후손이 되리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르칠 막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갈 2:26 이하).

하나님 앞에선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선 부모와 자식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고 교회는 가르칠 책임이 있는 부모를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된 부모가 자녀를 훌륭한 사회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꾼이 되자말고 일꾼이 됩시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뤄지길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제13일

6월 18일

하나님의 친구

본문: 창 18:1-8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하는 것은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입니다. 왕하 20:7, 약 2:23, 사 41:9에서 하나님은 세 차례나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히 13:2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천사보다 더 큰 이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줄 알고 대접했으나 이것이 동기가 되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친구를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길손이 간청한 것이

주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 오히려 간청한 쪽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늘 손님 대접을 잘했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부모님을, 가족을, 이웃을 잘 대접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난 후에 인간적으로 됩시다.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성경읽기일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친구가 됩시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시고 소동을 심판하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정을 베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반드시 주시기로 다시 확인시켜주셨습니다.(10절) 이처럼 필요를 채움이 친구로서의 진정한 동정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 15:12-15에서는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였고, 마 28:20에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선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단순한 순종-① 능동적인 순종의 자세, ② 계속적, ③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14일

6월 19일

사라의 웃음

본문: 창 18:9-15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큰 요지가 있습

니다.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고, 숨어서 웃었으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고 하나님

제15일

6월 20일

이삭의 출생

본문: 창 21:1-7

오랫동안 지켜오시던 침묵을 깨트리기도 하여 이삭을 출생시키셨습니다. 이 출생으로 인하여-약속 성취-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웃었던 사라가 이제는 시 126편과 같은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마지막 날 받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인하여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출생을 통한 중요한 교훈을 배웁시다. 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 하셨습니다(1절).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선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②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2, 5, 7절에는 인간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을 맡기셨으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을 주시고, 기약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③ 하나님은 자기 언약 성취를 위하여 서두루지 않습니다(본문 2절, 17:21, 18:10, 14).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립시다.

둘째, 이삭의 출생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서 나타난 몇가지 공통점은 초자연적이라는 점과 언약의 씨, 약속한 후부터 성취까지는 긴 시간을 요했으며,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고, 이름이 상징적이며,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출생되었으며,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확실히 기적이었고, 둘 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엡 2:1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적(靈的)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나아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회입니다(롬 4:20-22).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롬 4:23, 24).

이 성회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오히려 쓴 웃음을 지은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았거나 확신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12절 이하)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

민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가 복의 사람이 되었으며,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히 1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신앙은 큰 죄입니다.

또한 불신앙은 다른 죄(또 다른 불신앙)를 이끌어냅니다. 즉, 나는 웃지 않았노라고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게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심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한두 번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불신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10절)

사라는 하나님께서 역만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선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라는 이제 진짜로 웃는 여자가 되었습니다(창 21:6 이하). 이것은 본문 12절에 나오는 웃음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승리의 참된 웃음을 웃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사라는 한때 하나님께 불신앙이었지만 남편에게 순종한 이유로 칭찬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라가 갖게된 신앙, 웃음, 칭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권속에게 주신 약속인줄 믿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거듭난 신자,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6·25상기 연합기도회

공동기도문

* 다음 공동기도문은 6월 25일 낮에배시 전국교회가 한음성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고난과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의로우신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오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번영과 영광을 입은 백성이 배운과 배신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통회 자복하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섬겼으며

책임적 자유를 허락받았으나 소욕을 채우는 기회로 오용하였으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증오하고 오만하였으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시간에 이성없는 짐승같이 부끄러운 영광을 찾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와 우리 조상이 범한 죄로 인하여 39년 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국토분단과 민족분산의 비극의 씨를 남게 되었음을 슬프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았으며

정치적 대립과 사상적 갈등으로 불신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부끄러움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강팍하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사랑으로 깨치시고 사르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자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부패한 부분들은 성결케 하옵시고

탈선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옵시며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개혁을

불충이 있는 곳에 헌신을 주옵소서.

빈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이 되게하옵시고, 좌절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소망과 일치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밝히는

시대적 향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화평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전쟁과 폭력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교만과 사치와 모든 악한 행위에서 저희를 건져주옵소서.

아집과 편견에서,

소외됨과 무기력에서,

분쟁과 이기심에서,

혼란과 거짓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노사가 사랑으로 만나고,

스승과 제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이 화합할 수 있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북녘땅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애소하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오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6천만 한겨레가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합창할 수 있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이 땅 위에 모든 악이 소멸되며 다시는 피흘림이 없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의의 나라로 번영케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옵나이다.

아멘.



▲ 「믿음의 떡」 잔치에 참여한 교우들



▲ 각 행진대 표시판을 들고 안내하는 봉사요원



▲ 에바다부 학생들을 위하여 수화기
임태주 전도사

카메라에 잡힌 시온성 대행진 스냅



▲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시상식 광경



▲ 새벽기도회 끝난 후 분당 앞
찬송부르는 성도들



▲ 휠체어를 타고 예배드리는 성도



▲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신앙간증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본교회 서사모아 파송 선교사인 박형렬 선교사 선교현지에서 「신앙간증문」을 기고해 왔다.

박선교사는 신앙간증에서 학창시절의 어려움, 선교사로서의 헌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간증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편집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므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기는 하였으나 충현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이 당시에 중등부를 지도하시던 현 당회장이신 이종운 목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생활을 배우게 하였고, 이때부터 학교 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부장과 신앙부장을 거쳐 회장으로 일을 함으로써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국민학교 시절부터 새벽마다 공부하기 위하여 커피를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중학 2학년 때에는 토혈을 하고 서울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십이지장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므로 이후 조리를 잘하지 못하여 건강이 점차로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학 2학년 때의 담임은 불교 신자이었는데 어느날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문득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침체된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한동안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6년 1월 1일 신년예배 때 “아침 해가 뜰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부를 때에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비록 15년 밖에 살아오지 않았지만 빛난 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을 깨달으면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학년이 되어 2개월째에 1등을 하게 되었고 그후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주위의 동료들이 당장에 시급한 공부 때문에 주일 성수나 기타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였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후인지라, 주말은 철저히 성수하면서(당시에 월요일 시험이 있으면 토요일 12시까지 공부하고 제장을 덮은 후 주일 자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음) 대신 첫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말씀에 순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서울 중·고등학교를 통한 학문의 실력배양을 할 수 있었으나,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십이지장 출혈로 다시 서울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 옆에 당뇨병 치료처 입원중이던 어느 의사님께서 저에게 의학을 공부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을 두고 기도하던 중,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집안에 닥쳤습니다. 집에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더니 설상가상으로 화재까지 났습니다. 집안은 빚에 쫓기어 경기도 변두리까지 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과외지도 자리를 구하러 다녔고 다른 형제들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갈 차비를 이웃에서 빌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에는 쌀이 떨어졌을 때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하지 않았더니 요한복음 6:69에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믿고 알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다음은 그 한 예입니다.

의과대학 예과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본과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기란 매우 어려웠고 더구나 학비와 책값 마련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도중 교회에

깨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졸업 때까지 학비뿐만 아니라 책값까지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천국 일꾼을 키우는 장학사업이 얼마나 귀함을 깨달았고 전도서 11:1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의료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병원을 찾다가 전주 예수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3년전 방글라데쉬로 선교가려고 하였으나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지 않아 주저하게 되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십이지장궤양으로 토혈 학창시절 시험 때문에 주일 성수 어기지 않아 성경의 “하라”에 절대 순종, 큰 은혜 받아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온 작구들이 울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우체부 아저씨가 전보를 가져왔는데 먼 친척이 쌀 한가마니를 부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여 1년을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였으나, 여전히 건강은 약하였고, 학교 성적도 떨어졌고, 집안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팔로 의과대학에 가려면, 체력,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중 한 가지도 없어서 의과대학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의과대학에 갈 소원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까지 주셔서 결국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우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여 학비를 조달하려고 애썼습니다. 경제력 여건이 계속 어려워 당하는 정신적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안이숙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분의 순박한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이숙씨에게 있었던 놀라운 신앙 체험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읽어나가면서 “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사람들의 명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들러 하나님께 저의 사정을 토로하였고 방과 후 집으로 가면서 다시 교회에 들러 저의 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1주일 후 분반공부 시간에 감창인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학교 등록을 하였고 나고 물으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미국에 사사다가 불의의 사고로 자식 하나를 잃고 상심 중에 잠시 귀국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잃은 자식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키우고 싶다고 하여 장학금을 기탁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장학생을 할까 기도하는데 자주 네 생각이 떠오르더구나” 하시면서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장학금을 주신 분은 현재의 이현실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한 학기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고, 작년에 네팔 선교의 문이 열리는듯 하더니 다시 닫혔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 곳이든 순종하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남태평양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하기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할 때, 순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요 6:28-29)

박형렬(선교사·서사모아 파송)

사랑부에 차량봉사를! 매주 주일만 이용

교회학교 사랑부(부장: 이종석 장로)에서는 매주일 사랑부 학생들을 태우고 다닐 차량(봉고나 콤비)을 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독지가나 성도들이 계시면 사랑부로 연락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신간안내

김창인 원로목사



국판 433쪽 값 5,000원
충현교회 출판부 발행

지상강단

•본문 / 요 14:27

요즘처럼 평안이라는 단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제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주변을 둘러봐도 맑은 곳이라고는 하나 없이 잔뜩 찌푸린 여름 장마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4:27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며 성도가 누려야 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질병, 전쟁, 기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수없이 깨어진 인생의 모습들로 세상은 언제나 깊은 신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익숙해진 '평안'의 개념은 이런 고통, 질병 갖가지 인간들이 끌어 안고 있는 상처와 괴로움들이 소멸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인생의 아픔들이 소멸되는 것으로 평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회복됐다"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상황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면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 속에 그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빌 4:6-7).

즉 요 14:27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란 내가 희생하고 또는 죽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험악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는 평안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상관없는 어떤 '여유와 기쁨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 14:27에도 보면 이때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요 14:30, 31 읽고).

이 죽음의 현장으로 떠나시려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어떤 '평안'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평안'의 정체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면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우리가 남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므로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웃을 딛고 올라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는 세속적 평안에 본성적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평안의 기준을 꺼내놓고 그 평안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누렸고 추구했던 그런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요구하셨던 참된 평안인가? 하는 물음을 오늘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서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이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 평안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에 형통과 만족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까?

반대로, 혹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행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므로 이웃이 이익을 본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이 깊은 원칙이 우리 모두의 전 생애 속에 생활 원리로 서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에 대한 성숙과 갱신이 없는 한 결국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만 편안하다는 얘기 밖엔 되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송태근 목사(제3교구·직전부 지도)

권사회 기도운동 불붙어 매주 수요기도후 기도원서

본교회 권사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 이후 충현기도원에서 연속기도회를 갖고 있다.

각반별로 진행되는 동 기도회는 1백여 명의 권사들이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한편 권사회는 권사회 내에 상조회를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동 상조부는 회장이 통괄하며 각반 반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부원은 각반에서 선출하며 10명 단위를 1개조로 하고 조장 1인을 두고, 동원시는 2개조로 하기로 했다.

조위는 권사회에서 화환을 준비하고, 본교회 평신도 가정에서 상을 당하였을 경우 각반 제량으로 위로키로 했다.

교사 46명 추가 임명 교육위원회 각부서로

교육위원회(위원장: 오택희장로)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교사 46명을 임명했다.

새롭게 임명받은 각부별 교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아부=정경옥, 이흥순, 진연화, 황운자, ▲유치부=김정화, ▲유년부=김현주, ▲초등부=신혜진, 김승기, 이인수, 김춘택, 유인애, 장혜진, 정소원, ▲고등부=조선희, 김태두, 신재성, 함용식, 채영기, 한준기, ▲장년1부=심정례, 송숙자, 민경애, 김광근, 한민수, 이순영, 김희중, 박정애, 윤병인, 박천례, 박상철, 채명혜, ▲소망부=이상덕, 조철주, ▲새신자부=이복규, ▲타아부=조숙호, 이남복, 박광석, 박부미, 이옥순, 윤명순, 김재춘, 이귀

례, 박태휘, 김준남, 차명신, 이점숙(이상 46명).

회원확보운동 전개 장년1부 교사 및 회원들

교회학교 장년1부(부장: 김제명 장로)



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새벽기도회 시간을 이용하여 회원확보운동을 전개했다.

1989년도 회원확보 400명을 목표로 동운동을 전개한 장년1부는 만30세~39세까지의 해당년령의 출석을 원하고 있다.(사진)

위임목사 동정

☆ 이종윤 위임목사는 오는 27일(화) 부산 고신대학원에서 개최되는 하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하실 예정이다.

☆ 오는 6월 29일(목) 오후3시 연세대 연합신학대원이 주최하는 연세 목회자 하기세미나에서 강의하실 예정이다.

본교회 교인 가정중 군입대자 전도위원회에 주소 알려주셔요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본교회 교인의 자녀 또는 본교회 교인으로서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교인의 주소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주소를 알려주신 분에게는 본교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간충현」 「계간충현」 「만나」 「주보」 등을 매월 우송해 준다.

연락처: (주일) 351번 전도위원회
(평일) 406번 전도위원회.

충현프리즘

☆ 시온성 대행진 차량봉사 9교구(교구장: 송기홍장로, 지도교역자: 이세열목사, 정연희 전도사) 돈암구역 이흥순권사 아들이 박원순성도(부인 장화순 집사)가 시온성대행진 15일간 대형버스로 1백여명의 성도들 수송에 헌신했다.

정능을 출발하여 돈암동, 중앙로타리, 왕십리 무학여고, 영동대교, 그리고 교회까지를 왕복운행한 박원순성도의 고마운 뜻을 이난에 기록해 보고 싶다.

☆ 봉사자들에게 열쇠고리 선물 시온성대행진 기간중 수고한 봉사요원 전원과 각교구 구역일 군들에게 본교회 열쇠고리를 선물할 것을 시온성대행진 참모부가 결정했다.

40여 대의 봉고차 기사들, 교회직원, 차량관리부원들, 그리고 숨어서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그마한 정성을 표시하기로 했다.

☆ 각부서들 회원 확장에 총력전 시온성대행진 기간중 할렐루야 찬양대는 전단까지 만들어 대원유치에 열을 올렸고, 장년1

부와 새가정부도 프랑카드까지 펼치고 회원확보에 총력전, 이에 뒤질세라 직전부도 찬양팀을 동원하여 울동과 찬송으로 뜨거운 유치작전.

☆ 총진군의 날 교회본당이 팽창했다.

이번 시온성대행진의 하일라이트인 18일 총진군의 날에는 본교회 본당 전 좌석이 팽창 너무나도 은혜로운 새벽기도회 시간이었다. 교회학교 학생들로부터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종윤 위임목사의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날 새벽기도회 참석자는 무려 8,000명에 이르렀는데, 충현교회에 새로운 기록(새벽기도회 참석인원)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 손에 손잡고 감사의 인사

20일 새벽기도회 끝난 후 온성도들은 15일간의 모든 피곤도 잊은채 시온성대행진에 하루도 빠지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서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주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회장: 한정직 목사)가 주최하는 6·25상기 연합기도회가 6월 25일 오후 4시 영락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란 주제로 개최될 동 기도회는 ① 한국교회의 각성과 연합을 위하여, ② 한국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③ 북한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그리고 ④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날 기도회는 최훈목사(동도교회) 사회로 진행, 이종윤목사(충현교회)의 기도, 최태섭장로와 공덕귀권사의 성경봉독, 임인식목사(노량진교회)의 설교가 있게 되며, 한정직목사 축도로 1부 기도회를 마친다.

전국교회가 25일 낮예배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

공동기도문은 “우리와 우리 조상이 범한 죄로 인하여 39년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국토분단과 민족분산의 비극의 씨를 낳게 되었음을 슬프게 고백한다.”고 전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노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6천만 한겨레

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합창할 수 있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간구하고 있다. (공동기도문 전문 별첨 참조)

준비기도회 가져 23일, 본교회당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 본교회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6·25상기 연합기도회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강병훈 목사 사회로 진행 홍순우 목사의 기도, 이종윤 목사의 말씀이 있는 후 한정직 목사 축도로 1부예배를 마치고, 2부에서는 6·25집회관계 경과 및 취지 설명을 임인식목사가 했다.

목회자 세미나 국제화

본교회 당회는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1990년부터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세계교회에 공헌키로 했다.

지난해 8월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연맹 사무총장인 노봉린 박사에게 연구를 위촉한 후 노박사는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협의 또는 통계를 통한 연구를 하여 지난 6월 22일 정기당회에서 이를 보고하였다.

6·25상기 연합기도회 개최



▲ 유치부(부장: 정광호장로)는 사온성대행진 기간 중 전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교회당을 돌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했다.

잠실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서 민족화합 대각성 금식성회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주최한 민족화합 대각성 금식성회가 지난 22-24일까지 잠실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기도했다.

우리의 살 길은 민족이 화합하고 각성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정신적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믿고 이번에 금식성회를 가진 것이다.

동 금식성회엔 본교회에 김창인 원로목사가 첫날 집회에서 설교를 맡았으며, 조용기, 홍순우, 김우영 목사 등이 매일 저녁 설교했다.

1989년 계절학교(여름) 개요 보고서<안>

1989. 6.

구분 부별	행 사 명	주 제	주 제 성 구	주 제 찬 송	실시기간	실시장소
1. 영 아 부	제15회 여름성경학교	믿음과 행함의 구원생활	시 121: 1~8	예수님은 같이요 진리요	7.24~25	아 멘 홀
2. 유 치 부	제20회 여름성경학교	구원받은 새 삶		구원받은 새 삶	7.24~26	소석관 205호
3. 유 년 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	도와주는 어린이	시41:1	94	7.24~26	소석관 212, 301, 307호
4. 초 등 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	선한목자 예수님	요 10:11	442	7.24~26	소석관 407, 414호
5. 소 년 부	제36회 여름성경학교	새롭게 하소서	고후 5:17	493	7.24~26	충현기도원
6. 중 등 부	제27회 여름 수양회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라가라	벧후 3:18	507	7.26~29	충현기도원
7. 고 등 부	제27회 여름 수양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	빌 1:20	102	7.26~29	합동신학원
8. 대 학 부	제20회 여름 수양회	이렇게 사랑하라	요 13:18	414	7.10~13	충현기도원
9. 청년 1부	제1회 여름 수양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딤후 4:7	507	7.16~19	충현기도원
10. 청년 2부	제20회 여름 수양회	믿는 도리를 군계 잡으라	히 4:14~16	513	7.16~19	충현기도원
11. 장년 1부	제1회 여름 수양회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 1:29	377	8.18~19	충현기도원
12. 장년 2부	제6회 여름 수양회	주 안에서 하나되자	엡 4:3~6	278	8.16~17	충현기도원
13. 장년 3부		구원의 확신	롬 1:17	194	8.14~15	충현기도원
14. 소 망 부					8.25~26	충현기도원
15. 직 전 부	제13회 여름 수양회	성숙으로 나아가자	히 6:1~2	350	8.3~5	충현기도원
16. 새가정부	제6회 여름 수양회	가정의 경건생활	창 2:22~24	305	6. 6	충현기도원
17. 사 랑 부	제1회 여름성경학교	말씀과 순종	딤후 3:16	234	7.24~25	소석관 107호
18. 예비다부	제1회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힘써 배우는 사람이 되자	딤후 3:14	235	7.20~21	베다니홀 소석관109호

강 사	참 가 인 원(명)			
	학 생	교 사	기 타	계
김연이	350	50	학부모 350	750
주선애·정연희 한용관	400	70	학부모 400	870
김경성	700	70		770
양창근	700	70		770
김주아	700	70		770
김성윤·조정자	600	70		670
유영기·김광석 이유아	350	45		395
오덕교·김익경 마일수	200	19		219
이만열·김익경 김해규·이조웅	120	7		127
이만열·정근두 김재영	50	5		55
김학진	170	30		200
이원길	140	38	50	228
신복윤	250	55		305
김영구·김정순	250	50		300
송태근	150	35		185
윤용규	65	15		80
김정자	50	50		100
임태주	50	28		78
	5,295	777	800	6,872

※계절학교(여름) 실시기간 중 교회차량(대형버스·유치원 콤비와 베스타)을 교육위원회에서 전용할 것임.

독자시

조국을 위한 기도

(시온성대행진을 마치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촌 한 모퉁이 조그마한 한반도

반신불수 병신되어 오늘도 울부짖습니다.

이제는 풀어주시지요.

이제는 피를 돌게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한 조상 한 피받아 한 말을 하면서도

미움과 질투와 거짓의 담을 헐 줄을 모릅니다.

이제는 가슴을 열게 하십시오.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자비로운 하나님!

온 세계가 주목하던 올림픽 개최 나라

노사간에, 사제간에, 사회의 구석마다 윤리와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리를 도로 찾게 하옵소서.

이제는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세계로 뻗어가던 중진국의 수레마퀴가 마지막 고개길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동양의 예루살렘, 성령이 역사하시던 곳

지금은 배반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복음전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1989. 6. 20.

박 철구(집사·제8교구)

교회 상설전시장 안내
본당 1층 로비에 마련

교회 홍보부는 배다니홀 앞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사진 및 그림 등을 늘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현의 문화를 새롭게 꽃피우고 교회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충현인의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각종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남기고 또한 판매하고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전시장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와지길 소망합니다.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6월 30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6과 애국자의 참 모습

성경: 느헤미야 1:1-11

요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
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느 1:6)

찬송: 79, 502, 504장

주전 440년경 메데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재위 20년 기슬르월(12월)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라 할만한 수산성에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유다자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요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유다 동족을 위하여 너무도 귀한 사명을 감당케 되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 동족을 사랑하였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의 왕을 가까이 모시는 술관원이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고관으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가운데 주저앉아 연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언제나 동족들을 향하여 있었다. 당시 유다 땅에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소수의 유다 백성이 있었다. 스룹바벨, 에스라 등에 의하여 귀환한 유다 자손들이 힘들게 성전은 다시 쌓았으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무너져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외적을 방어할 길이 없었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유다로부터 온 형제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고 찌꺼기 같이 남은 백성 동족이 관심 밖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향 땅의 동족의 소식을 들을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퍼하였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여러 문제에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임해야 하리라.

2. 동족을 위해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1) 동족의 죄를 자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였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신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한 인물이다.(단 9:3-20)

(2)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흠으실 것이요, 저들이 돌이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저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을 이제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레 26:40-45, 신 30:1-10)

(3) 동족을 구하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앞에 형통하기를 기도하였다.(1:11) 이는 자신의 안일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을 위하여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다. 마치 에스더가 허락없이 왕 앞에 나갈 일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으나 동족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심정과 같은 것이었다. 기도 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 왕 앞에 큰 사명 감당하도록 허락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가운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느 2:1-10)

함께 생각합시다

1.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2.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3.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곤고했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번성케 하시고 복음으로 왕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저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